“비구니 역량결집, 한국불교 미래”

본각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선거 출마의 변 밝혀

조계종 제12대 전국비구니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본각 스님이 출마의 변을 밝혔다.

본각 스님은 8월 19일 전국비구니회장 후보서류를 접수한 뒤 ‘소통하고 실천하는 전국비구니회’라는 제목의 출마의 변을 발표했다. 본각 스님은 “비구니 스님 개개인의 역량은 세계적으로 내세

육문 스님 8월 15일 입후보
본각 스님은 19일 등록 마쳐

울 만큼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사회 각 영역에서 매우 활발하고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비구니스님들이 땀 흘리는 데 비해 우리가 기대하는 변화는 더디다”고 강조했다.

본각 스님은 이어 “우리는 불교의 비전을 생각하면서 신선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추진력을 높일 때”라고 현재 한국불교가 처한 상황을 진단하면서 “개별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 결집하는 조직을 갖춰야 한국 비구니의 미래가 담보될 수 있다. 지금 이 시기가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중요한 전환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본각 스님은 전국비구니회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효율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민주적이고 개방된 시스템을 마련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스님은 이를 위해 △출가자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노비구니 복지방안 모색 △초심행자와 사미니 교육 및 수행환경 개선 △비구니회관 편의 제공 및 활용방법 연구 △사회적 문제에 발 빠르게 대처 △한국불교와 비구니승가의 세계화 △비구니승가연구소 활성화 및 비구니역사 기록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본각 스님은 “우리 선대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는 잘 기억하고 보존하며, 동시에 미래와 후대를 위한 새로운 역사와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유능한 비구니스님들이 주축이 돼 더 늦기 전에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좌표를 설정할 때가 됐다. 본인에게 무겁고 중요한 소임을 걸머지라고 경책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본각 스님과 함께 차기 회장후보로 거론되던 현 회장 육문 스님은 지난 15일 입후보를 마치고, 현재 출마의 변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육문 스님은 기호 1번, 본각 스님은 기호 2번을 배정받을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불교성전편찬위원회에 새로 위촉된 기획위원 · 전문위원들과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오른쪽 네 번째).

불교성전편찬위, 분야별 전문가 위촉

8월 21일 원묵 스님 · 박영동 교법사 등 8명

조계종본 불교성전 편찬에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추가로 합류했다. 불교성전편찬추진위(위원장 지홍, 조계종 포교원장)는 8월 2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불교성전편찬추진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기획위원에 박영동 동대사대부여고 교법사가, 전문위원에 종회의원 원묵 스님, 동국대 철학박사 휴담 스님, 동국대 철학박사 도문 스님, 은유와마음연구소 연구원 효신 스님, 이진영 동국대역경원 연구원, 권기찬 조계종 포교연구실 연구원 등이 추가로 위촉됐다.

불교성전편찬위원장 지홍 스님은 “이 시대가 바라는 불교적 가치를 충분히 불교성전에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편찬위원회에 합류시켰다”며 “불교성전은 단순한 책 한 권이 아니라 어린이부터 노인계층까지 전 계층이 쉽게 읽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합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간화선도 경쟁해야 조계종 산다”

백성호 중앙일보 종교전문기자 조계종 화합과혁신위 토론회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그동안 불교계는 기도와 제사에 의지해왔지만 세대는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미래세대는 기도가 아닌 자신의 현실문제 해결을 위해 종교를 찾는다. 붓다가 제시한 나침반을 따라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선과 명상을 강조하는 불교에서 조계종은 답을 찾을 수 있다. 간화선의 현대화다. 진정 수승한 수행법이라면 명상 시장의 경쟁에서도 이겨야 한다.”

탈종교화에 따른 종교의 위기를 논하는 시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수행법인 간화선을 강조하는 조계종이 미래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수행법과 경쟁을 통해 현대인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화합과혁신위원회는 8월 21일 서울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라운드 테이블 토론회-조계종의 전환, 무엇을 이룰 것인가?’를 개최했다. ‘시대가 요구하는 불교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백성호 중앙일보 종교전문기자는 불교의 미래



조계종 화합과혁신위원회 라운드 테이블 토론회 현장. 이날 ‘시대가 요구하는 불교의 모습’을 주제로 각 발제자들이 개인의 견해를 밝혔다.

‘시대가 요구하는 불교’ 주제로
수행법의 현대적 진화 제안해
김성철 · 김재영 · 인경 스님 발제
공동체 · 불교운동 중요성 강조

전략을 ‘수행의 보편화’로 꼽았다.

백성호 기자는 “현대인이 종교를 찾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자신의 현실문제 해결’, 둘째는 ‘깨달음이나 해탈 혹은 구원’, 셋째는 ‘강박증이나 우울증 등 심리치료’다. 이 중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것이 현실문제 해결”이라며 “불교의 솔루션은 불교가 처음 생겨난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문제해결이다. 불교가 미래에 살아남으려면 이런 본질을 위한 참선과 명상을 일반인들이 일상에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백 기자는 이어 불교명상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현대인에게 전하면서도 종교적 울타리에 갇히지 않는 방법을 조계종이 강구해야 한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백 기자는 “조계종은 간화선만 고집할 게 아니라 글로벌 불교의 수행법에도 문을 열어야 한다. 간화선도 이들과 경쟁하며 진화해야만 미래사회에서도 살아남는 수행법이 될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찾아오는 이에게 화두를 던져주고 참구하라고 했다면, 이제는 쌍방향소통을 중심으로 안목을 갖춘 이가 문답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 기자는 또한 불교용어를 쓰지 않고 불교명상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종단 차원에서 키워내고, 제도나 격식이 아닌 불교 본질인 명상에 중심을 둘 것을 당부했다.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교수는 △참회기도 중심 법회 △대사회적 시민운동 보조 △관혼상제 의례에 불교적 의미 부여 △호계주 보급운동 △재가불자 등급 부여 등을 불교의 미래 전략으로 제시했다.

김성철 교수는 “불자가 되고 싶어도 직업적으로, 생활에서 지킬 수 없는 계율이 있어 망설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에서 자연스레 발생하는 고민”이라며 “재가불자가 5계를 지킬 때 만행자, 4계만 지킬 때 다분행자, 2~3계를 지킬 때 소분행자, 1계만 지킬 때 일분행자 등으로 재가불자의 등급을 구분해 계의 중요성을 각인시켜야 불교가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재영 청보리회 지도법사는 사부대중공동체가 보살부흥운동을 전개하고 권력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 인경 스님은 단일 행자교육원을 설립해 문중개념을 없애고, 단기출가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10년 교육개혁불사 현장 떠나다

현응 스님, 8월 16일 조계종 6 · 7대 교육원장 퇴임

2009년 11월부터 10년 동안 조계종 승가교육 변화를 이끈 현응 스님이 마침표를 찍고, 해인총림 해인사를 이끈다.

조계종은 8월 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제6 · 7대 교육원장 현응 스님 퇴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퇴임식에서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지난 10년 동안 교육개혁불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현응 스님의 공로를 기리며 공로상을 수여했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퇴임사를 통해 지난 10년을 함께 해준 교역직 스님들과 재가 종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스님은 “추진해온 교육개혁사업의 핵심은, 불교교육 체계를 제도적인 측면에서 교육내용에 이르기까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승가의 사정에 맞추어 정비하는 일이었다”면서 “제가 책임지고 추진한 10년간의 임무는 끝났다. 하지만 교육불사는 새로운 차원으로 다시 또 시작될 것이다. 승가교육도 불교의 모습도 완성태는 없다. 끊임없이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응 스님이 이끌었던 지난 10년간 승가교육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본교육의 혁신이다. 가장 많은 변화는 교육 방식과 내용이다. 이전 교육이 한문불전 중심으로 이뤄진

교육과정 개편 등 변화 이끌어
학인대회 통해 학인 역량 고취

훈고학적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우리말 중심의 토론식 수업으로 변화했다.

사찰승가대학을 기존 19곳에서 14곳으로 재편하는 대신 율학 · 선학 · 초기불교 · 한문불전 등 승가대학원 체계를 만들어 기본교육 후 전문적인 교육을 원하는 학인들이 진학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승가교육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학인대회였다. 염불 · 외국



‘제6 · 7대 교육원장 퇴임식’에서 그간의 소회를 밝히고, 함께해준 교역직 · 일반직 종무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는 현응 스님.

어 · 토론 · 설법 등의 분야에서 진행된 대회에서 학인 스님들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재능을 어김없이 보여줬다.

교육불사 이후 달라진 것 중 하나는 연수의 활성화다. 그간 구족계 수지 이후 재교육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지만, 10년간의 불사는 ‘승가 평생교육 시대’를 열게 했다. 지난 2011년 3개 분야 24개 강좌로 시작한 연수 교육은 현재 강좌 · 순례형 등 103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연평균 5000여 명의 스님들이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신청해 받고 있다. 또한 연수인증교육 실시로 교육원이 전부 교육할 수 없는 분야를 인증교육으로 대체했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불교자원봉사 연수까지 확대 · 실시했다.

이와 함께 원행 스님은 퇴임식 직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현응 스님에게 해인사 주지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성민 기자

전통 불복장 점안작법 학술대회

담양 용화사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

5인중 1인 도월수진 스님 계열 불복장 중흥조
묵담대종사와 그 후계자 도월수진 스님

경애하옵는 전국 불교 대종사 명사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여러분!
드디어 전통 불복장 점안작법이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제13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전통 불복장 점안작법은 각 종단을 초월한 한국불교 전체의 문화재입니다.
금번 학술세미나에 참여하여 보고 듣기만 하여도 불교의 근본 뜻을 알게 되고 개인의
소원성취는 물론이고 국운융창 경제부흥 남북통일 세계평화가 꼭 실현되리라 확신합니다.
전통 불복장 점안작법 학술세미나를 개최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부대중과
불교 신도 외 일반인들도 무루 참석하시기를 기원드려 마지 않습니다.


묵담 올사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
불복장 점안작법 전수자
담양 용화사 주지 도월 수진 합 장

시간	발표자 및 주제	비고
09:30 ~ 10:00	식전 행사	불복장 영상 상영
10:00 ~ 10:30	개회사 및 축사	• 수진스님 • 이개호 농수산부장관 • 불복장 작법 보존회 회장, 도지사, 군수
10:30 ~ 10:40	휴식	단상 정리
10:40 ~ 11:10	〈제1발표〉 이중표 – 전남대 • 불복장 작법의 사상적 배경	학술대회 사회 : 최종남(중앙승가대)
11:10 ~ 11:40	〈제2발표〉 이승혜 – 삼성 리움 • 불복장 작법의 발생과 전래	
11:40 ~ 13:00	점심 공양	
13:00 ~ 13:30	〈제3발표〉 남권희 – 경북대 • 담양 용화사 소장 불복장 작법 관련 필사본의 서지적 가치	
13:30 ~ 14:00	〈제4발표〉 수암스님 – 금붕사 • 묵담 대종사의 불복장 작법 중흥과 전승	
14:00 ~ 14:10	휴식	
14:10 ~ 14:40	〈제5발표〉 이종수 – 순천대 • 담양 용화사 도월 수진 스님의 불복장 작법 계승과 전승 활동	
14:40 ~ 15:00	종합평가 및 폐회식	종합 평가 : 제주 선광사 주지 수열스님

전통 불복장 점안작법 학술대회 안내

주최 및 후원
• 주최 : 전남 담양 용화사 신도회(061-381-2683)
• 주관 : (사)국가무형문화재 불복장작법 보존회
• 후원 :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담양군, 문화재청, BTN, 현대불교신문

장소 및 일시
• 장소 : 담양 문화회관 대강당 (담양 시외버스터미널 옆)
• 일시 : 2019년 9월 7일(음력 8월 9일) 토요일 10시부터 15시까지

한국불교태고종 용화사 전남 담양군 담양읍 남촌길 77 | Tel. 061)381-2683